하나님 전능하심이 내게 뭔 소용이냐?

(열왕기하 1:1~18)

1.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3.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5.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6.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7.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8.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전능하심이 내게 뭔 소용이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심이 내게 뭔 소용이냐?'

하나님의 속성 중 전능하심은 전능하신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력만 있어서는 안 되고 주권과 사랑도 있으셔야 하고 무소부재하심의 속성 또한 전능하심에 포함됩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든지 계셔야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할 때의 이 전

능하심은 우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속성 전체를 포함하거나 전체 중에서 어떤 것이든 연관되지 않는 것이 없는 대표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나를 알고 계시는데 지금의 내 상황을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으며 주관자이심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가계부채가 17조가 넘었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부채의 질이 아주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즉 일반 은행보다 이자가 훨씬 비싼 제2금융권 등에서 돈을 빌려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7조나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채를 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혹은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가족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 전능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락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있을 때에 저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던 두 분 장로님과 집사님 한 분이 강릉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고 불행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2년 전에 한 장로님의 사모님 되시는 권사님께서 너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다고 하십니다.
가슴이 좀 답답해서 병원에 갔는데 폐에 조금 이상이 생겼다고 해서 치료받으려던 차에 바로 돌아가셨답니다. 그게 바로 옥시 가습기세정제 문제였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됐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날 목사님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들도 옥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당연히 은혜로운 이야기로 받아들이며 아멘! 했지만 마음에 자꾸 의문이 생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 것일까 다 보고 계셨을텐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로 가버리신 것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사자밥이 되어서 엄마와 자녀가 손을 잡고 죽을 때에 자녀가 죽는 모습을 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디에서 뭘 하고 계셨던 것일까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질문이 20세기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의 대량학살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일 때에 93명의 지성인들이 히틀러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신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본회퍼나 칼 바르트 같은 고백교회의 저항운동을 하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본회퍼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면서 미치광이가 버스를 몰

고 시장에서 질주하고 있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그 미치광이 운전사를 끌어내려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에 대해 몰트만 신학자는 십자가에서 힌트를 얻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무력하심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고 주장하였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생기면 밤잠을 안자고 죽어라 기도하며 간구하는 스타일이고, 두 번째는 탈영성화 되어서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먹고 살만 하면 이 세상 문제가 주어졌을 때에 이 세상 안에서의 처리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문제가 생기면 상담을 받습니다. 명언집이나 개발서등을 통해서 방법을 찾기도 하고,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면 가서 풀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돈을 들여서 학원에 보내면 됩니다. 교회 다니는 것조차도 습관적입니다.
기독교의 교회조직에 포함된 것 자체만으로도 적잖은 이득을 봅니다. 교회는 소속감을 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경조사가 있을 때에 참여해서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한 교회도 인간사회이기 때문에 인정받음의 기쁨이 있고 장로가 되면 지위도 있고 명예도 주어집니다.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욕을 먹지만 반대급부도 있어서 어느 교회의 장로라고 하면 사회적으로 알아줍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는 특별한 체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막연하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데,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별할 필요도 구별할 욕구도 못 느낍니다. 그저 기도를 위해서 하는 말 뿐이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전자처럼 무조건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신앙이라면, 후자는 하나님을 화석화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2년 통치하고 죽습니다. 아하시야가 바알숭배로 인해 악하기도 했지만 죽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낫지 않자 마음이 답답해진 아하시야는 블레셋의 대표적인 다섯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의 바알세붑의 우상에게 물으려 합니다.

‘세붑’은 ‘파리’라는 뜻이 있고 ‘바알’은 ‘주인, 남편, 주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파리나 곤충이 병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세붑은 질병을 치료하는 신으로서도 믿어졌고 풍요와 다산을 주관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위한 질병을 다스리는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아하시야도 바알을 섬기고 있었지만 외지의 우상이 더 확실한 길을 비춰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사신들을 보내게 되는데 사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온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3~4절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야의 행동을 죽음으로 응대하시며 우리에게 전하시려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병이 났을 때에 취해야 될 행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되지 않는가를 문제 삼으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되지 않는 것은 한 마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찾고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상 앞에서 간절히 구해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확률은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할 때와 조금도 차이나지 않을 것입니다. 불상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대해 갖고 있는 소원을 뒤뜰에 있는 고목나무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더라도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비는 것과의 확률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가 내 삶에 대해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응답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맞아 들어간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지 못 느끼는지 이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고, 애굽 군대가 추격해오자 물이 다시 합쳐서 애굽 군대는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들이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의 행진은 곧바로 몇 주도 되지 않아 르비딤에서는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출17:7절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라고 합니다.
홍해에서의 기적을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던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었던 것입니

다. 왜냐하면 르비딤에서의 일을 보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돈 때문에 시달리다보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잘못 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다 허구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마음에서 감각되지 않고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스타일의 소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 소원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고 주권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의식적으로 믿으려하고 어떻게든 내 소원에 하나님을 적용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을 하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하나님의 신앙을 벗어나는 것을 무서워하는데 그럴 때에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주로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교회의 교인들이 열심히 구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감리교나 장로교 같은 기성 교단으로 넘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온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 시작합니다.
순복음교회 쪽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우상화 시키더니, 장로교나 감리교의 사람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하겠다고 하나님을 화석화 시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특히 장로교에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자고 하는데 실지로는 하나님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고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나 초대 교회 교인들의 순교 현장을 보면 맞지 않는 말이 되고 맙니다. 그 분들이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잘 믿으신 분들이었습니다.
내 마음 속에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소원과 바람이 견고하게 유지된다면 반드시 하나님 우상화의 단계가 나타나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화석화가 나타납니다.

삼성 기업의 이건희 씨 예수 안 믿어도 세계적 굴지의 기업을 일궈냈고, 안 믿는 일본은 GDP가 3위이고 중국은 13억 중에 1억만 믿는데 GDP 2위입니다. 미국도 다를 바가 없어서 이제 믿는다고 할 수도 없는데 동성애가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잘만 사는 걸 보면 굳이 돈 버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돈 벌기 위해 기도하지 말자고 하니까 장로교 신자들은 그 말이 맞는다고 받아들이지만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내 마음에서 이 세상에 대한 나의 소원이 지속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소원대로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마음에 체감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로서 인정할 뿐이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지를 못합니다.
아하시야의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도 체감을 하지 못하니 병이 나도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상태에서는 내 소원의 대한 열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출15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를 부르고 미라암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몇 주 안 되어 르비딤에 오자 어마어마한 홍해 사건은 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내가 내 몸에 대해서 물이나 음식 등의 필요한 것을 내가 계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고 나에 대한 소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전으로 말하면 번제단에서 죽어야만 합니다. 우리 몸에는 아픔을 느끼는 통점, 압박을 느끼는 압점, 온도를 느끼는 냉온점이 있듯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신점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지성소입니다.
마음의 지성소에는 내가 궁극적인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돈이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서 돈을 벌더라도,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상화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의 유전적인 체질은 하나님이 들여오셔야 될 지성소에 끊임없이 세상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느껴야 될 신점인 마음의 지성소에 이 세상의 돈 건강 승진 등이 들어와서, 그것을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라고 생각하여 그것이 안 되면 답답해하고 슬퍼하고 걱정합니다.
내가 답답해하고 근심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마음의 신점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에 있을 때에 일이 안 풀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됩니다.

문제는 신점인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없으면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좀 있으면 기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죽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하늘과 땅의 경계선입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늘 쪽에 와 있으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로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 경계 안에 있는 것을 붙잡고 있다면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도 그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 쪽으로 가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화된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것 같이 느끼거나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것을 소원하며 붙잡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한 반드시 우상화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감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기가 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벗어나지 못한 채 화석화된 신앙생활이 유지될 뿐인데 둘 다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지성소를 뚫고 들어와서 걱정을 가져다주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죽고, 십자가와 하늘 사이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감되는 에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